

반 고흐 그림같은 황홀함... 영화 '러빙 빈센트'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10년...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

이를 보면 이런 시도가 아닐까. 임마르 베리만은 삶을 임마르 베리만 스타일로 영화화하는 것이거나 히치콕이 걸어온 길을 히치콕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

영화 러빙 빈센트(감독 도로타 코비엘라·휴 웰치먼)가 그렇다.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상업적 설명보다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빈센트 반 고흐의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짧은 시간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거짓말처럼 사그라진 어느 화가의 삶이 그가 보여줬던 거칠면서도 섬세한 붓터치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볼 수 있을까. 1891년,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빈센트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 사이에 오가던 편지를 배달하던 우체부 조셉 롤랭은 빈센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배달 불가로 반송되자 그의 아들 아르망을 시켜 테오에게 직접 전달케 한다.

하지만 테오도 이미 숨을 거둔 뒤다. 아르망은 테오를 만나러 간 곳에서 형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빈센트의 마지막 작업 장소이자 그가 숨을 거둔 곳인 오베르로 향한다. 아르망은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빈센트가 죽은 이유를 추적해 간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영화 러빙 빈센트는 꼭 봐야 할 이유가 있는 작품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건 그리 특별하지도 않다. 유화 작업을 위해 4000명의 화가를 오디션해 107명을 선발, 이들이 2년 동안 6만2450점의 유화 그림을 직접 그려 완성한 게 바로 이



영화다.

고흐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 '즈이브 병사의 반신상' '하늘의 노란 집'으로 이어지는 오프닝 시퀀스를 만드는 데만 1년이 걸렸고, 작품 내에는 고흐의 명화 130점이 다시 그려져 담겼다.

고흐를 향한 경외와 사랑,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기에 그의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관객이라면 러빙 빈센트는 내내 황홀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관객이 고흐의 세계로 직행할 수 있게 한다.

간편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고흐의 그림에 취해 따라가다가 관객 각자가 생각하는 고흐를 보게 되면 그만이다(영화가 가로 67cm 세로 49cm 캔버스와 같은 비율로 제작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화는 일종의 수사물이다. 자살하기 위해 총을 쏘았지만, 머리가 아닌 복부에 상처를 입은 게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총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르망은 오베르에서 고흐를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실에

접근해간다.

광범한 방식인데다가 정교한 구조를 갖췄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고흐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의 정보를 차례로 제공하며 러빙 빈센트 내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연출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다.

중요한 건 역시 고흐의 죽음에 얽힌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고흐라는 사람의 실체다.

러빙 빈센트의 고흐는 위대한 예술가도, 자신의 귀를 자른 광인(狂人)도 정신병원을 들락거린 환자도 아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바로 그 시선이 '빈센트는 무너졌던 거야 누구든 그럴 수 있다. 삶은 강한 사람도 무너뜨리곤 해' 라고 말하는 조셉의 대사에, '빈센트는 캔버스마다 빛나는 별을 그렸어. 하지만 그 별들은 깊고 텅 빈 외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지. 그는 미래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라는 토로에 담겨있다.

/뉴스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경기 유니폼 공개

스포츠클럽 나이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갈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경기 유니폼을 선보였다.

남녀 아이스하키팀 유니폼은 대표팀의 지평선을 상징하는 색상 조합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들이 현대적인 패턴과 감각으로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홈 경기 유니폼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포인트, 원정 경기 유니폼은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포인트가 적용됐다. 유니폼 상의와 팔 소매에 얹혀진 독특한 그래픽 패턴은 전통 건축양식에서 비롯됐다. 상의 우측에는 태극기 좌측에는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번 유니폼에 적용되는 스우시 로고는 스케이트 날(블레이드)에서 영감을 받아 눈에 띄는 크롬 플러커 필름 소재로 제작돼 아이스하키 유니폼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다. 거친 몸싸움과 빠른 속도감이 특징



인 종목에 맞춰 혁신 기술도 눈에 띈다. 나이키는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 간 충돌이 많은 아이스하키 유니폼의 필수요소를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규정, 선수 움직임의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를 고안해냈다. 올림픽 어퍼럴 부문의 나이키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캇 투지네 윌

리엄스는 "이번 아이스하키 유니폼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다. 혁신은 물론 적용된 폰트와 문양, 그리고 번호 디자인까지 이번 유니폼을 통해 경기장의 선수나 관중석의 팬들 모두 한 차원 높은 경기력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kt, 피어밴드와 105만달러 재계약... 3시즌 연속 동행

kt 위즈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라이언 피어밴드(32)와 1년 더 함께하기로 했다.

kt는 지난3일 외국인 투수 라이언 피어밴드와 계약금과 연봉 포함, 총액 105만 달러(약 11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8만 달러보다 37만 달러(인상률 66%) 인상된 계약조건이다.

2015시즌 국내리그에 데뷔한 피어밴드는 통산 87경기 출전해 28승 34패 평균자책점 4.09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26경기 8승 10패, 평균자책점 3.04의 성적을 남겼다.

3년 연속 리그 최하위에 머문 팀에



서 거둔 성적으로는 인상적이다. 특히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 구단 창단 최초로 평균자책점 부문 타이틀을 차지했다.

임종택 kt 단장은 "지난 시즌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며 팀 내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선수"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내년 시즌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피어밴드는 "재계약을 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가족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원 팬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 시즌 팀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준 코칭스태프와 동료 선수들, KBO 관계자, 야구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이태원에서 새로운 형식의 음악축제 펼쳐진다' 9일~12일까지 '현대카드 뮤직 위크 이태원'

현대카드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에 위치한 현대카드 바이날 앤 플라스틱(V&P)과 뮤직 라이브러리+인더스태이지 일대에서 '현대카드 뮤직 위크@이태원(MUSIC WEEK)@이태원'을 연다.

공연과 특별 바이날(LP) 마켓, 주요 뮤지션들의 바이날 한정판 공개 등으로 구성된다.

9일과 10일 인더스태이지에서 진행되는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38 선우정아 단독공연-구애'로 문을 연다. 선우정아는 2014년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과 '최우수 팝 음반상'을 받았다.

10일 오후 4시에는 현대카드 바이날 앤 플라스틱이 제작 지원한 언

네 이발관' 6집 '홀로 있는 사람들'과 티블로 솔로 1집 '열꽃'의 바이날 앨범을 오프라인에서 최초 공개하고 판매한다.

주말인 11일과 12일에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는 뮤지션들의 '고막 호강, 뮤직 라이브' 공연과 다채로운 버스킹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중고 바이날 앨범을 특별 판매하는 '구매각, 바이날' 행사가 진행된다.

인더스태이지에서 진행되는 '고막 호강, 뮤직 라이브' 공연에는 최근 듀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인디 듀오 '발발간사춘기'를 필두로 심어송, 라이터 치즈와 프롬이 11일 무대에 오른다.



12일에는 특유의 감성을 담은 백백한 보컬로 노래하는 '브로콜리너마저'와 김사월X김해원, 권나무가 공연을 펼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태원에 위치한 현대카드의 뮤직 스페이스들을 중심으로 각 공간의 특징을 살려 실력과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과 바이날 마켓, 주요 뮤지션들의 한정판 바이날 공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1

전북체육고, 전국체전서 최고 성적 거둬

전북체육고등학교(교장 조성운)가 지난달 28일 폐막한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체육영예 특수목적고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체고는 이번 대회에 육상을 비롯한 21개 종목에 148명의 선수가 출전해 전라북도 고등부 메달의 절반인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5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같은 선전은 전북이 17개 시도 중 고등부 순위를 전년도 13위에서 9위로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 전북체고의 메달 현황을 보면 일부 종목 선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체조,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나타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학생들의 기초체력 단련과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모든 지도자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학교관계자는 분석했다.

조성운 교장은 "앞으로도 체육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엘리트 체육의 요람으로 학교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아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